



SICA 고등 과정 입학설명회

일시: 3월 19일(토) 오전 10시 장소: SICA(양재동 363)

- 2016년 하반기 기숙 중·고등학교 개교(여주) 예정
- 모집 대상 : 8, 9학년(2002-2003년생)

SICA는 모든 과목을 성경의 기초 위에 가르칩니다.

SICA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칩니다.

SICA는 기독교 고전교육으로 가르칩니다.

SICA는 샬롯 메이슨 교육철학을 토대로 품성을 가르칩니다.

SICA는 전 과목을 역사로 통합하여 교육합니다.

SICA는 이중 언어로 교육합니다.

SICA는 부모님과 함께 교육합니다.

SICA는 고전어(라틴어)를 가르칩니다.

유·초·중등 과정 입학설명회는 3월 16일, 4월 20일(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입학설명회 후 학년 담당교사와 면담이 있습니다.
사전예약 바랍니다.

종교개혁과 인간교육

종교개혁이 인류역사에 공헌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주의, 기본인권 사상, 자본주의, 현대과학 등 현대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종교개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 교육이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의무교육제도는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오직 소수의 귀족만이 교육을 받았고, 주로 사제, 의사, 공직자 등 전문직 양성이 주목적이었다. 최근까지도 유럽에서 대학교(university)란 이름을 가지려면 반드시 의학부, 법학부, 신학부가 있어야 했던 것도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칼뱅은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 내용은 성경과 하나님의 창조라고 가르쳤다. 그런 지식은 귀족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뱅은 국가는 모든 시민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터의 생각도 비슷했다. 그는 모든 개인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책임이 있으며 그런 구원의 지식은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루터도 모든 아동은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다. 그 이전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었고 라틴어를 아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한이 있었다. 이에 반기를 든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보편적인 의무교육이었다. 1524년에 독일의 시장들과 시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터는 교육이 가져다주는 영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강조했고, 루터의 정신에 따라 멜란히톤(Philipp Melanchthon)과 부겐하겐(Johann Bugenhagen)은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읽기, 쓰기, 수학과 종교 과목을 가르쳤다. 오늘의 독일어는 루터의 성경번역과 보편교육의 강조가 계기 되어 문명어로 격상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주교 예배에는 미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경과 강론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신교 예배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중요한 자리를 잡았고 자국어에 이뤄지는 설교는 교인들에게 엄청난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다. 오늘날에 대부분의 개신교 국가가 교육이나 문화수준에서 대부분의 가톨릭 국가보다 앞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사람의 삶이 자연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형성한 문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오늘날 그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동력을 생산하는 교육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세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불과 60년 만에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상당수준의 민주화를 이룩한 것도 교육 때문이란 사실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육이 귀족교육이며 전문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이었다면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인간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교육, 특히 한국의 교육은 점점 더 종교개혁 이전의 교육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인간교육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많은 힘을 획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교육도 돈 있는 소수만 받고 가난한 사람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귀족교육이 되고 있다. “이제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게 되었다”든가 “은수저, 흙수저”등의 비아냥이 바로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한국교육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한국 교육의 바깥만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한국에 오래 살았던 독일 태생 이참 씨는 한국이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육이 큰 문젯거리라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우리끼리 경쟁”에 휩쓸려 있는 것과 동방무례지국으로 만드는 인성교육의 부재를 그 이유로 들었다. 정확하고 예리한 지적이라 하

겠다. 특히 사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행학습은 그렇게 타락한 한국 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모르는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울 것을 미리 배우므로 오직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생산적인 사교육에 학부모는 막대한 돈을 바치며 학생들은 지쳐서 공부에 싫증만 내게 되고,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은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사회 계층을 형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며 저출산의 재앙까지 몰고 온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유산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녀들과 한국 사회에도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종교개혁을 제대로 기념하려면 교육이 직업을 얻고 경쟁해서 이길 힘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그 위대한 전통을 다시 살려 한국 교육을 정상적인 인간교육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오피니언면 월 드뷰 2016.2.27일자)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관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회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인양샘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충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종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학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실무진	황정희	JnD 디자인 실장, 월간 『과학과 기술』, 주간 강원랜드 『다시, 꿈』, 『위즈플러스』, 격월간 『국악누리』 등 다수 디자인
	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충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교수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종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황정희 디자이너



신효영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前)충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충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실행위원회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충신대 교수), 신국원 (충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I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충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Contents

WORLDVIEW · MARCH · 2016

WORLDVIEW

2016년 3월호 WORLDVIEW 통권 189호



표지인을 문예란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사랑이 있을 때 빛난다_문애란

- SPECIAL**
- 16 기획칼럼 종교개혁과 교육_조성국
 - 20 기획칼럼 종교개혁 정신과 가정의 신앙교육_한신영
 - 24 기획칼럼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한 제안_박상호
 - 28 기획칼럼 기독교교육기관의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고찰_김아론
 - 32 편집인추천 함께, 더 깊고도 넓게

- COLUMN**
- 02 대표주간 종교개혁과 인간교육_손봉호
 - 36 메디컬칼럼 Cure & Care 내 환자 린다씨_최현일
 - 39 묻고 답하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우리의 비참함_김한수

- CONTENTS**
- 33 그뻘 그랬지 제1회 컨퍼런스, 1984
 - 34 루터의 도시를 가다#1 아이스레벤_추태화
 - 44 BE+Live+tr 고전에서 길을 찾다_이경원

- CULTURE**
- 48 땀복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프로파간다
 - 60 유머 기적_손봉호

- BOOK REVIEW**
- 50 서평 꺼지지 않는 불길_우상현
 - 52 서평 알라_김선욱

- NEWS**
- 58 사무국 뉴스
 - 59 3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최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신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 진 신효영, G&M재단 제공
일러스트 김규상
제 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
(한강르네상스빌 A동)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페이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https://www.facebook.com/worldviewmagazine)
블 로 그 <http://cworldview.blog.me>
이메일 m.worldview.or.kr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랑이 있을 때 빛난다

문애란_G&M 글로벌 문화재단대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소리 없이 강하다’, ‘미인은 잠꾸러기’등

칸국제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광고계 인사, 여성 1호 카피라이터, 문애란.

홀연히 광고계를 떠나

2006년부터 국제구호단체 캠페션에서

2013년부터는 G&M글로벌문화재단을 맡고 있다.

오랜 친구인 Young2080의 대표이자

영원한 젊은이, 고직한 선교사와 함께 만나다.

고직한
(이하 고)

이렇게 소개하려니 어색합니다만(웃음), 〈월드 뷰〉 독자들을 위해 그간 하신 일을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십니다만, 젊은 시절 광고인으로, 여성 카피라이터 1호, 광고의 여신, 이런 호칭으로 불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카피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문애란
(이하 문)

광고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쑥스럽지만... 저희 웰컴에서 만든 광고중에서 가장 회자화 되었던 광고는 자동차 광고였죠. ‘췌!’, 소리가 차를 말한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었죠. 당시 IMF 시절에 출시된 차였는데, 그 회사의 다른 차종이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소비자 불만이 많았어요. 이 차는 개발자가 트렁크에 들어가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소음제거에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딱 꽂혔습니다. ‘소리가 없는 차’라는 장점과 사람들이 차가 고장 나면 항상 하는 말이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는 인사이트와 결부 시킨 것이 크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은 것이지요. 그래서 ‘췌!’이라는 한 자의 카피와 아이디어로 자동차 판매 1위도 하고, 깐느 은사좌상도 받고 대한민국 광고 대상도 받았었지요.

고 또 이런 광고도 있었지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떤 배경에서 나온 광고였나요?

문 이 광고도 IMF때 만들었던 거예요. 당시 TV만 켜면 카드광고가 나올 때였는데, 대부분의 카드회사가 사랑, 성공 등을 소구하여 소비자 포지셔닝이 잡힌 상태라, 후발주자인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타겟인 직장인을 잡기로 했는데, 당시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잘리고, 또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던 때였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카피가 수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나봐요.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하나 꼽으라면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화장품 광고 카피를 들고 싶어요. 웰컴 설립 초창기에 한 광고인데, 당시 매출이 40억정도 었던 회사가 광고 6개월 만에 수백억으로 매출이 뛰었었지요.



현대카드의 '떠나라' 광고

고 대학 졸업 이후에 바로 광고 회사에 입사하셨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문 졸업전에 우연히 광고회사에서 처음으로 카피라이터를 뽑는다는 학교 게시판 보고 입사시험을 치렀었지요. 800대 1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 갔지만... 실력이 아니라 바로 전날 상식 문제를 풀어 보았는데, 거기서 다 나와서 합격한거지요. 그후 화장품회사, 다른 광고대행사를 거쳐서 1987년 웰컴이라는 회사를 광고인 세명과 창립했죠. 저보다 늘 실력있고 멋진 분들하고 일했는데, 제가 여자라서 늘 매스컴의 초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실력보다 허명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지요.

고 <월드뷰> 독자들은 자신의 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자신의 일, 지금은 일과 신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시고 있으십니까만, 당시는 어땠나요?

문 당시는 이원적이었죠. 그것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세계관이란 말은커녕, IVF, CCC등도 몰랐고요. 그냥 교회를 다녔고, 주일 예배때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리고 그때는 부흥집회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기복적인 말씀이었지요. 어쩌면 그 분들이 들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러하듯,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둘째 아이를 낳고 얼마 안되서 남편이 심장수술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심장수술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어려운 수술이었지요. 병실에서 남편의 병을 가지고 주님께 토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제게 비밀의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그 날 새벽, 병원 문을 나오면서 보였던 십자가가 너무나 강렬하게 저를 초청해서, 그 후로 새벽기도를 꼭 가게 되었어요.

고 그때에도 광고장이로서의 자신의 일과 신앙을 연결시켜 생각해보지는 않았죠?

문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도 없었죠.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인데 광고인들의 99%가 비크리스천이고, 전 전도를 잘할 수 없으니깐 죄책감이 많았지요. 더구나 광고주 중 몇 분이 크리스천이고 또 크리스천 기업이었는데, 그 회사를 가보면 다들 그분을 욕해요. 밖에서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졌는데도, 자기 직원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견 독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욕먹일까봐 크리스천이라 말하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나까 교회에서는 꽤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정작 저는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 않니까 죄책감으로 가득차서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는 것이 한데 어우러지지 않아 마치 한다리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있는 것같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고 더군다나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의 필요와 욕심을 자극하기도 해야 하고요.

문 광고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데 약간 과장해야 하죠. 예전에 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그만두겠다, 자기는 고가 운동화 광고하는 걸 용납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전 그 친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정의 측면에서 이해했어야 하는데 당시는 ‘광고하는 사람이 그런 상업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관뉘야지’ 했어요. 그런 일이 많았고, 아직도 이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민을 목회자나 신앙 선배님들에게 털어 놓았는데도 그 분들에게서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었어요. 당시는 참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고 ■ 그렇게 창립한 웰컴에서 창립20주년을 맞이하여 대표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문 ■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기가 미안하네요. 광고계에서는 저희 회사나 저나 꽤 인정도 많아 받았지요. 밖에서 볼 때는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매번 이기고 언론에도 노출이 잦다보니, 찬란한 인생의 전성기였지요. 하지만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커지면 커질 수록 저는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입버릇처럼 남편에게 이야기 했어요.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난 선교사로 떠나겠다’고요. 그즈음 저희 회사가 사옥을 지었는데 좀 유명한 건축물이었어요. 돌아가신 고(故)하용조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을 위한 강의를 요청하셔서 강의를 마친후, 건물 투어를 해드렸는데 불쑥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세상광고를 잘 하는데 하나님 광고도 해보지?”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나라에 쓰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온누리교회에서 그때 맞춤 전도집회를 시작하였는데, 광고하듯이 슬로건도 만들고 영상도 제작해서 도와드리면서 광고에서 못 느꼈던 다른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 때 하목사님과 성경공부도 하면서 여러 크리스천 롤모델(role model)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분들을 그곳에서 처음 본 거예요.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의 남은 인생의 후반기 하프타임(Halftime)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직업상, 꽤 성공한 분들을 많이 뵈곤 했는데, 대부분 60대가 지나면서 노욕으로 인해 삶이 망가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되니까, 제 삶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컴패션을 만나게 되었고, 회사일은 잘 안하고 컴패션 일만 열심을 다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카고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신문에 은퇴했다고 기사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은퇴가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요. 그 후 몇년간 컴패션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배웠습니다.



고 만약, 그때 지금과 같은 일과 신앙의 통합적 관점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 저는 일하면서 일과 신앙의 간극이 너무 커서 해결책을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세상과 일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할리가 없다 싶었죠. 답을 찾고 싶어서 미국의 〈일과 신학 연구소(Center for Faith and Work)〉도 가보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앤디 밀스(Andy Mills, Archegos Capital Management 회장, Kings college의 이사장)를 만나 일과 신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되었지요. 이 분도 34살에 예수를 믿고 난 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10여명의 CEO들과 신학자들이 7~8년에 걸쳐 성경 속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일의 정의, 목적, 의미를 찾고, 일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말씀 속에서 찾는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완성된 웹사이트가 [Theology of Work .org]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는지,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일의 방법, 일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일을 하는 평가기준 등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신 것이지요. 그때 내가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광고를 그만두지 않았을 텐데 싶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광고라는 걸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을 테고,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싶은 이 어려운 업종도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는데 말이죠.

고 일의 신학,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문 누구든 자신이 처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일을 하잖아요. 일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 최선을 다한다는 것(well-done)에 그치는 것이
우리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함께 동행하며, 내 상품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어야 하며(good).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한다(faithful)는 거죠. ●●

일의 신학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이야기 한다면, ‘일의 평가’를 예로 들어보죠. 이 부분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칭하지 않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하는 것(well-done)’을 지향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두 ‘잘’하는 것을 지향하죠. 저희는 이 ‘잘하는 것’을 넘어서는 평가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기준인 ‘착함(good)’입니다. 제품을 나쁘게 만들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남을 누르고 나의 성과만을 추구했다던지...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기준에 맞지 않지요. 그리고 마지막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충성(faithful)”입니다. 매순간 내가 주와 동행하였는가를 묻는 기준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well-done)에 그치는 것이 우리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함께 동행하며, 내 상품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어야 하며(good),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한다(faithful)는 거죠.

고 대표님의 갈등이 오늘의 사역에 영향을 큰 미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있는 G&M글로벌 문화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요. 저스트 쇼 업(Just Show Up)이라는 북클럽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문 제 인생에 또 한 단계의 큰 고비가 있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배설물’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우고 그로 인한 자유를 경험했어요. 내가 겪은 시련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데서 왔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알고 싶었을 때,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성경과 좋은 책이었습니다.



재단을 시작하며 성경과 좋은 책을 오디오로 녹음하여 책을 잘 읽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쉽게 책을 읽는 북클럽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Just Show Up’, 책 읽는 숙제 없이 ‘그냥 와’ 이런 말이죠. 함께 모여 오디오로 책을 듣고 눈으로 읽고,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제가 5개의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하는 분들의 나눔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성경, 좋은 책, 북클럽 멤버와의 나눔, 이것을 통해 저 자신이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월드뷰’가 바뀐 거죠.

고 벌써 G&M재단이 만들어진지가 4년째입니다.

문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 G&M재단에서 하는 일,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좀 설명해주시죠.

문 정식 명칭은 그레이스 앤드 머시 글로벌문화재단(The Grace & Mercy Foundation Korea)이에요. 하나님 안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신앙과 일에 대해 알고 싶었을 무렵 만난 분이 미국에 있는 빌 황(Bill Whang)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2007년, Grace and Mercy재단을 만들었어요. 전세계 신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곳을 후원하는 재단인데,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많아요. 한국에도 이런 재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고, 그때 마침 쉬고 있던 제가 돕기 시작한 거지요.

빌 대표님이 한국에 오셔서 놀란 것이, 한국의 기독교인이 무려 19%에 달한다는데 한국 회사 내에는 비리가 너무 많고, 기복적인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었어요. 살펴보니, 기독교인들이 도움이 되는 좋은 신앙서적을 거의 읽지 않는 것을 알게 되거죠. 그래서 좋은 서적을 선정하여 오디오로 만들고, 북클럽을 만들어 함께 읽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지요(저스트 쇼 업, Just Show Up).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일과 삶의 통합이었어요. 이를 위해 연구소가 설립 되었지요(FWIA, Faith and Work Institute Asia). 기독교에 등을 돌린 많은 사람들에게 변증을 통해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RZIM(Ravi Zacharias International Ministry)도 지원하려고 해요. 올해 5월 19일 라비 재커라이어스(Ravi Zacharias)가 한국 방문하시는 것을 계기로,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을 초청하여 ‘어떠한 질문이라도 물어라, 답하겠다.’는 주제로 집회를 준비 중이에요. 또하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EHS, Emotional Healthy Spirituality). 어떻게 대화하며 이해할 것인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EHS의 피터(Peter Scazero)목사님을 초청하여, 온누리교회와 함께 지방이나 작은 교회의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600명 정도 초청하여 관계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속적으로 훈련받으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 피아(FWIA, Faith and Work Institute Asia)에 대해 조금더 설명해주시죠.

문 일과 관련된 주제들, 일, 돈, 성공, 윤리, 관계, 갈등해소 등의 여섯가지 버킷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 가능한 성경말씀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제를 만들어 각자의 일터 속에서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구약학을 전공한 김윤희 교수님께서 대표로 수고하고 계시지요.

고 추후 아시아권까지 보급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 꿈은 그렇습니다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그분께서 여실 것입니다.

고 지금까지의 문 대표님의 삶을 보면 저 높은 곳에서 저 낮은 곳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외 저명한 인사를 많이 알면서도 안주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확장합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 직업 특성상 아주 높은 곳에 사는 사람도 만나왔고, 세계를 끌여가는 사람도 많이 봤지요. 그리고 컴패션을 통해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는 분들도 보고요. 그런데 세상은 참 공평해요. 가난 중에도 예수 하나로 너무나도 부유한 사람을 봤고, 세상이 부러워할 부를 지녔음에도 불행한 이들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행복은 자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고 마지막으로 <월드뷰>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이라도요.

문 ‘지성은 사랑이 있을 때 빛난다’고 말하고 싶어요.

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직한 25년간 청년사역 한 길을 걸은 고직한 선교사는 연세대학교와 호주SMBC(Sydney Missionary and College)를 졸업했다. 한국 IVF 총무를 역임했고, 한국 복음화협의회, 사랑의교회 청년대학부 디렉터를 거쳐 현재 청년목회자연합(Young2080)의 상임 대표이다. 저서로는 청년 사역 교과서인 『청년 사역, 맨땅에 헤딩하지 말자』, 『날아라 큐티맨』외 다수가 있다.

G&M 글로벌문화재단(The Grace & Mercy Foundation Korea)
홈페이지 <http://gnmkorea.org> | 대표번호 T. 02-2055-4088

복음 전파와 수용의 발자취로 돌아보는 일본의 어제와 오늘

선교의 무덤이라는 일본과 '일본적 기독교'의 실체는 무엇일까?

하비에르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일본 기독교 전래와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기독교와 사회, 특히 천황제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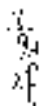
일본 기독교의 현주소를 파악한다.



하비에르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본 기독교 선교의 역사

나카무라 사토시 지음
박창수 옮김
456면
20,000원



T. 333-5161 <http://www.hsbooks.com>

“근대 일본 정신사에 대한 반성과 미래의 전망 모색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일본 기독교회사를 통사적으로 다루는 이 책은, 일본 기독교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일본 기독교와 적지 않은 교섭 속에 진행되어 온 한국 기독교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풍부한 정보와 커다란 통찰력을 줄 것이다.” (양현혜/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WORLDVIEW SPECTATL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지 말아요.


종교개혁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기억해 봅시다.

먼저 모두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친 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곳의 우리 사명은
이름 있는 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없이 부대끼며 어울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친절과 도전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종교개혁과 교육

왜 종교개혁인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가톨릭교회 교권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비텐베르크교회 정문에 95개조의 의견서를 부착하였던 일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으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올해는 일찍부터 종교개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여러 기독교기관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배경은 5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숫자의 비중도 있겠지만, 사실 교회 개혁 요구의 절박성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 교회는, 종교개혁이후 가톨릭교회로부터 개혁된 서구 개신교 전통 교회들의 선교로 세워진 교회이며, 이제 겨우 130여년을 넘어서었다. 한국교회에게 종교개혁은,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서구교회 역사로부터 ‘들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종교개혁이후 개혁교회의 슬로건이 된 ‘지속적 개혁’도 장로교 역사신학 수업에서는 칭송되지만, 교회에서는 ‘들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한국개신교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해방직후 고신파에서 일어난 장로교회 내 신사참배회개운동 외에는 광범위한 종교개혁을 경험한 일도, 종교개혁을 시도한 일도 없다. 무엇과 달라야 하며,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교회는 세속적 자본주의 사회의 종교영역 표현(version)처럼 보인다. 한국사회 내에서 구조적 문제가 비난받으면서 변화와 개혁요구가 커지면 한국교회 내에서도 변화와 개혁요구가 커진다. 일부 교회지도자들이 보여준 교권을 통한 세속적 성공주의와 권위주의, 사업가형 교회지도자들의 무리한 성장주의, 그리고 일부 교회지도자들의 실망스러운 도덕의식 수준은 더 이

상 교회 내의 비밀이 아니라 충분히 공개된 일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특별히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이러한 다급한 현실의 필요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할 원수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내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원수와 친화하여 구조적으로도 연결되었다. 이에 한국교회는 개신교의 출발점이 되는 종교개혁을 깊이 숙고하면서 결단하여, 구조를 바꾸고, 개혁운동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미 와 있다.

교육은 종교개혁 운동의 실제적인 방법이었다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교육을 주목하는 것은 필수적이면서 의미 있는 일이다. 교육은 종교개혁의 일부인 동시에 종교개혁운동의 실제적인 방법이었던 때문이다. 종교개혁자들에게 교육이 자연스러운 종교개혁 방법이었던 이유는,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교권을 가진 성직행정자가 아니라 교회의 교사이면서 학자인 성직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된 인격과 전문성이 교육에 있었으므로 그들의 관심은 교회의식과 사역, 그리고 분화된 학문으로서의 신학에 제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학교의 사람들이었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기독교적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시키려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교회내의 권력과 구조, 도덕의식 개혁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은 종교문제로 출발하였지만 당시 사회에서 종교는 현대사회에서 개인문제로 간주되곤 하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면서 삶의 전체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 학문과 문화의 개혁, 사회의 개혁, 일상적 삶의 개혁을 동반하여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의 문제를 넘



조성국 Potchefstroomse Universiteit vir Christelike Hoër Onderwys에서 교육철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회장 역임하였으며 현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이자 기독교세계관대학원장이다.

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 국가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종교개혁이 신학자만의 관심사, 신학교육의 관심사로 제한된 것은 세속화된 근대국가 확립과 근대학문지배 이후의 일이다. 특히 19세기 이후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교회를 학교와, 신학을 근대학문들과, 신학대학교를 일반대학교와 엄격하게 구별하곤 했다. 이는 세속적인 근대국가의 확립으로 사회 내 제반 영역에서 종교의 권위와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면서 교회와 신학이 취한 자기보존의 소극적 대응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대응으로 종교개혁의 의의는 교회 내로 축소되었고, 학교와 교육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크게 약화되었다. 많은 경우 교회와 신학이 사회와 문화와 세계를 관심밖에 둬으로써 그 모든 영역을 세속국가에 고스란히 내어주게 된 것이다.

개혁의 시대, 무엇을 가르쳤는가?

종교개혁과 교육을 오늘날 새롭게 검토해야 할 필요는 근대이후 교회와 신학이 취한 소극적인 반응의 실패 결과 때문이다. 종교개혁을 성공적인 운동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혁운동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교육은 개인적으로는 내면 확신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교회의 교육은 신앙 이해와 예배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은 세계관의 변화와 확립,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가톨릭교회와 차별화된, 참된 개혁교회와 개혁신앙을 확립하려고 첫 번째로 실행한 교육은 교리교육이었다. 교리교육은 기독교신앙과 삶에 대한 체계적인 요점교육이었다. 교리는 신학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더 실제적인 의도는 교육에 있었다. 단순한 형태의 교리교육서, 문답형식의 교리문답서, 신학적 의미를 해설하는 기독교강요 등이 교회의 공적인 고백서, 교과서와 참고서가 되었다. 교리교육서는 성례와 심방을 통해, 그리고 교회교육과 학교수업을 통해 반복하여 가르쳐졌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개혁교회는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공적 경전으로 승인하였으며, 교회예배를 더 이상 성례 중심의 미사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설교 중심으로 바꾸었다. 모국어 성경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예배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가톨릭교회가 지배하던 시절처럼 의식과 문화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신앙을 느슨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교리교육과 성경해설로 참된 신앙을 분별하여 이해하고, 의문을 해명하여 확신에 이르게 한 것이다. 칼빈의 경우 목회자는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형의 목사였고, 교회는 양육하는 어머니였다. 전형적인 교육목회였던 셈이다. 근대이후 교리가 타협할 수 없는 신학적 논쟁문제로 간주되고 교리교육이 권위적인 딱딱한 교육처럼 간주되어 흥미를 잃었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확신의 근거를 개인의 체험에 두었고, 지성적 확신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교회들이 교리교육을 포기함으로써 공적 신앙고백에 기초한 공교회 의식이 약화되어 개교회중심주의에 빠져들게 되었다. 교리교육의 부재는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 이단에 취약한 그리스도인, 공교회 개념 없는 자의적인 교회이동 현상 외에도 교회관의 동이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래되는 교회 내 인간관계와 정책 문제 갈등을 초래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두 번째로 시도한 교육은 학교교육이었다. 특히 루터는 모국어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전에는 교육이란 주로 교회와 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종교계와 사회권력층 자녀들의 특권이였다. 교육 언어인 라틴어는 교육기회와 가능성의 장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루터는 여자아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모국어초등학교 운영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칼빈도 제네바학교에서 모국어초등교육과 더불어, 교회와 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라틴어와 인문 교육, 그리고 신학교육을 실행하였다. 칼빈은 잠시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 교회목회만 아니라 요한 스투름이 운영하는 스트라스부르크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칼빈은 이후 제네바로 돌아가 그 모델을 활용하여 학교를 재건하였다. 칼빈이 재건한 제네바아카데미는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이 개혁신학을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 유명한 학교가 되었고, 이후 유럽 개신교지역 학교들의 모델이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이 학교교육을 실행했던 것은 교회가 전반적인 기독교교육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 기능은 학교가 수행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실행하여 종교개혁운동을 지속할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이 아니고는 종교개혁의 확산이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언어와 문화, 사회와 세계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사회 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구비시키는 곳이다.


19세기에 이르러 근대국가가 공교육을 제도화하여 독점 운영하면서 교회는 학교 운영의 권한을 상당부분 상실하였다. 정부주도의 학교는 인본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세속적 근대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전통적인 기독교세계관을 옛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탈종교적인 세속사회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학교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신념체계는 빠른 속도로 인본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근대 세계관으로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헌신은 현저하게 약화되었고, 20세기 중반이후부터는 교회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한 도전에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교육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였고, 교회와 학교와의 관계를 의미 있게 생각해 내지 못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을 세계관의 혼합성과 이원성에 방치되게 만들었다. 사회와 문화와 세계를 가르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학교이다. 기독교학교가 없는, 혹은 학교교육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교회는, 기독교세계관 형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해방이전까지 미션스쿨을 주요한 기독교사역으로 여겼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교육받은 계층에서도 큰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한국교회는 개교회 확립과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학교를 의미 있는 기관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기독교학교교육의 부재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세계관, 각종 이데올로기, 특히 자본주의 세계관을 기독교세계관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여러 세계관들이 내면에 혼재하고, 실용적으로 적용 영역을 구분하는 분열현상을 보인다. 그 결과가 한국사회 세계관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종교개혁 당시 거짓교리를 가르치던 권세자 로마가톨릭 교회의 자리에 오늘날 지독히 세속적인 현대사회가 대신 서있다. 그렇다면 로마가톨릭교회가 가르쳐 온 거짓된 교리와 이원론적 세계관은 오늘날에는 인본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세속적 세계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개인주의 등의 정치이념들, 특히 자본주의 이념일 수 있다. 종교개혁은 교회개혁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광범위한 것으로서 사회문화의 개혁, 전체적인 시대의 개혁이었다. 종교개혁은 참된 교리 이해를 통한 신앙의 재구성 and 확신을 도모하는 교리교육과 성경교육, 그리고 사회, 문화와 학문과 세계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사회와 문화를 개혁해 가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독교적 학교교육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종교개혁이 재각성될 때마다 항상 유효한 방법이었다.

한국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을 요구받는다면, 다시 종교개혁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통하여 그 개혁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교육을 통해 확산된 종교적 사회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정신과 가정의 신앙교육



종교개혁의 우산 아래로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매년 10월이면 교회에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지켜 왔지만, 그래도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들쭉거리는 것이 사실이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다. 개혁가들이 예배의 찬송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져왔지만 한국교회가 잊고 있었던 시편 찬송가. 단조롭고 지겨운(?) 그 찬송가를 매주 배워 부르고 있으며, 그 의미를 자세히 알기 위해 시편 설교와 시편 강기도 열리고 있다. 교회에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동안 무심히 배워왔던 교리문답서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교리 문답서들을 종교개혁 기념일과 연결시켜 다시 보면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이 거대한 유산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심지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부를 때면, 그의 두려움과 떨림이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강한 울림으로 느껴진다. 그가 어떤 믿음으로 이 찬송을 지었는지,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용기를 주셨는지, 그의 신앙고백이 어떠한지 공감되면서 감동의 눈물이 나오기도 한다. 중세의 교회사와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사를 다시 공부하고 곱씹으면서 새로운 통찰과 도전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은 하나님이 성도를 가르치시는 시간이다. 종교개혁이라는 커다란 우산 속에서 2016년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역사를 배우다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사를 계속 배우고 있다.¹⁾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사를 배우면서 들은 많은 이름이 있다. 루터, 멜란히톤, 츠빙글리, 존 낙스, 칼뱅, 부셔, 파렐

등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인간적으로 위대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된다. 일례로 루터는 만성절에 교회 정문에 반박문 97개 조항을 붙이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교회사의 큰 획을 긋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단순히 로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다른 사제들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에 대자보를 붙인 것이다. 작은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낳게 되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한 걸음씩 또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종교개혁을 진행해 가셨다. 사람들의 철저한 계획과 조직적인 구성, 행정력으로 종교개혁이 단행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위한 성도들의 작은 용기와 행동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해 주신 것이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신앙의 선조들은 시대적 상황,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 앞에서의 간절함과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믿음의 거인 같은 존재들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 본다.

종교개혁 500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이며 작은 발걸음을 어떻게 딛고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특별히 부모라는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역할에 반응하고자 하는데, 우선 개혁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로마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부모됨의 역할을 개혁하였는지 배우고자 한다.

1 다나는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학교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교회사 공부를 한다.



한신영 (前) 샘물초등학교 교장이자 현재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있다.

종교개혁, 결혼의 재발견과 가정의 개혁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삶을 살았다. 진리가 아닌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을 때,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외치며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를 붙들었다. 교황의 절대 권력 아래 로마 교회가 성경과는 다른 구원의 조건들을 이야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sola Christus)가 구원자임을 선포했다. 구원을 위한 자신들의 공로와 인간적 행위를 강조할 때, 오직 믿음(sola fide)과 오직 은혜(sola gratia)를 외쳤으며,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을 외치며 그 시대와는 다른 소리를 내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 칼뱅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장례를 검소하게 치렀고, 그래서 지금도 그의 묘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적인 정신과 삶을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주는 도전을 새롭게 배우고자 한다. 개혁자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다. 2016년의 관점이 아니라 16세기 당시의 기준으로 이들의 결혼생활을 바라보면, 그들의 행보는 파격적이다.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제였다. 로마 교회와 교황청은 사제들의 독신주의를 교회법으로 제정하였다. 아무도 로마 교황청의 법에 반박할 수 없던 시대였다. 사제가 갑자기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겠다고 선언하더니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주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수많은 의심과 질타와 비난과 정죄의 소리가 들려왔을 것이다. 실제로 루터가 수도원에서 도망쳐 나온 수녀와 결혼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비판하며 등을 돌렸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사람의 판단과 시선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로마 교회에 빼앗겼던 아버지의 역할을 실제로 다시 찾아왔다.

루터 자신이 결혼하여 12명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정을 회복해야 할지 누구보다 고민했을 것이

다. 그는 어린이용 대소요리문답을 저술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십계명, 주기도문과 함께 가르치도록 하였다. 또한 신앙교육의 연장선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유럽은 새로운 식민지와의 교역으로 물질주의가 그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일반 대중들은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보다는 실제적인 경제 활동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며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었다. 루터는 이러한 부모들의 태도를 육신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의원들에게 기독교 학교의 건립과 운영을 호소하는 논문을 쓰기도 하였다. 루터뿐 아니라 많은 개혁자들이 가정의 중요성, 특히 부모의 신앙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 경전회를 통해 매일 성경을 읽고 성구를 암송하며, 교리문답을 가르쳐 신앙교육을 하도록 이끌었다. 결론적으로 개혁자들은 이전까지 로마 교회와 사제들에게 빼앗겼던 자녀의 신앙교육을 다시금 가정에게로, 부모에게로 돌려보내는 개혁을 계속적으로 해 나간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그 역할들을 고민하였기 때문이다.

개혁가들의 정신을 잇는 부모로 산다는 것은


개혁자들의 삶을 움직인 힘과 기준은 말씀이었다. 많은 사제들과 백성들이 전통과 규율에 매여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을 붙들고 있을 때,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진리의 기준을 붙들고 교회와 그들의 삶을 개혁해 갔다. 우리 시대의 부모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이와 동일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의 기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에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책임감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언약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교회나 다른 곳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자.


부모가 담당하자. 교회에서는 부모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회에서 바른 설교가 선포되어야 한다.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교회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부모는 교회의 도움을 기초로 언약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특별히 개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정 경건회를 회복하여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자녀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일을 삶에서 실천하면 좋겠다. 부모는 주께 은혜를 구하며 가정 경건회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시작은 쉽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의 삶은 바쁘고 분주하다. 가족이 함께 하루 15~30분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따로 결단하여 시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이 혼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여 시간과 공간과 자녀의 마음이 모아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정 경건회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다. ‘어떻게’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주께 지혜를 구하고 각자의 가정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자면 개혁자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신자들에게 가르쳤던 예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드러지는 가정 경건회는 공적 예배가 아니다. 예배의 형식과 같은 예전에 매일 필요가 없다. 신앙 고백문과 답을 함께 읽기만 하여도,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기만 하여도, 주일에 선포되었던 설교 말씀을 다시 요약하여 듣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만 하여도, 성경 말씀을 함께 암송만 하여도, 그리고 이러한 말씀과 함께 간단한 찬양과 기도도 마무리하기만 하여도 충분히 가정 경건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가정 경건회의 모습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지나치게 형식적일 수도, 덜 경건한 모양일 수도 있다. 또 무엇인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회의가 몰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각자의 가

정 상황에 맞게 자리 잡게 되면, 가정 경건회는 부모와 자녀의 신앙 고민을 나누고 주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영적 교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인 가정 경건회를 위해 부모의 결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가정 경건회를 유지시키는 힘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이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해 보는 것이다.

다시, “sola”를 외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sola”를 강조하였다면, 역으로 그 시대는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그 자리가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돌아보면 진리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는 심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한 것 같다. 부모인 나의 삶에서도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려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 “오직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이들의 삶을 채우고 싶은 유혹, “오직 은혜”가 아닌 부모의 노력과 의를 강조하며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라는 드라마 대사를 던지고 싶은 유혹,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키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높아지고 싶고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은 유혹 앞에 서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혁가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sola”의 외침에 반응해야겠다. 잘못 가고 있었다면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겠다. 작은 일상에서의 이러한 영적 투쟁과 결단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는 부모의 자세일 것이다.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한 제안

들어가며

한춘기 교수는 종교개혁시대의 교육에 영향을 준 사람들로 루터, 멜란히톤, 츠빙글리, 칼빈 등을 들었다. 특히 루터는 당시 교회와 사회의 무지에 탄식하면서 논문과 설교를 통하여 일반 백성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두었는데, 남녀 어린이 모두를 위한 교육, 즉 보편교육을 제창하며 국가가 교육에 대한 모든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조지 뱅크로프트는 칼빈을 초등교육의 아버지이자 무상교육 제도의 창시자로 소개한다. 칼빈은 집나지움과 아카데미로 나눌 수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집나지움은 16세까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고, 아카데미는 대학교의 기능을 하였다.

교회의 권위 대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한 종교개혁의 신학적 입장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의 중심교리는 기독교교육의 강조로 이어졌다. 종교개혁자들은 교육을 강조했고, 이러한 교육은 다시 종교개혁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학교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학교는 종교교육을 공교육의 장에서 밀어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 특히 청소년의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그 원인 분석과 대책 또한 다양하다. 이는 비단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톨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공교육이 제공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가정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세 가지 행동특성에 주목하고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에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다. 존 스토틀은 이미 1958년에 많은 현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정하지만, 교회에는 적대적이라고 기술했다. 은준관은 이것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세대’의 등장으로 묘사하면서, “교회도, 종교적 냄새가 나는 것도 싫다.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영적으로 살겠다”는 소위 ‘가나안 신자’(‘안 나가’를 거꾸로 읽은 것), ‘노마드 신자’(유목민처럼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이들), ‘스타벅스 신자’(교회 근처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보는 이들) 등으로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정리했다.

둘째, 청소년들은 교회가 자신의 인생 문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상화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가기 싫어 하는 이유를 교회가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했다. 김희자는 1997년의 궤륵조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51.4%가 종교단체가 인생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한다고 기록했다. 결국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교회가 자신의 인생 문제에 구체적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셋째,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공부와 신앙, 취미와 신앙에 대해 갈등한다. 폴 마샬은 지질학 박사 과정 중에도 밤낮으로 지질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만큼 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걱정과 자신의 신앙 관심이 자신의 전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고 고백했다.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갈등만 조장할 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다.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청소년들이 반응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청소년기의 발달론적 특징을 살핀 후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찾고자 한다.



박상호 ACTS 기독교교육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기독교교육 박사과정에 있다.

청소년의 신앙발달론적 특징

신앙발달이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바르게 알고, 믿고, 생활하는지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영적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때때로 종교적 가르침에 의문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부모님의 종교적 신념을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당위성과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러한 의문은 청소년들의 신앙 정체성, 안정감을 방해한다. 그 결과 신앙과 삶을 분리하거나 교회 혹은 신앙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1. 인지적 발달

청소년들은 추상적, 철학적 사고가 가능하고,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하여 신앙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강희찬은 청소년들에게 신 혹은 궁극자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다. 또한 타 종교와 타 이념을 만나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는 개별적·반성적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껴 교회를 떠나기도 하며, 다른 종교집단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한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의 교육적 신념에 따라 10대 초반까지는 교회에 다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68년 기아로 죽어가던 어린이 두 명의 사진이 Life라는 잡지에 실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후 주일 학교 목사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회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잡스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악 또는 부당함에 대한 반감을 처리할 수 없어 당황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파울러에 따르면 이 단계의 신앙은 문자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고 진부한 신앙교육에 환멸을 느낀다. 또한 이 시기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또래 동료가 다른 신앙적 가치를 지닌다면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조발그니는 주입식 교육이 신앙교육의 문제이며,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자구적 신앙교육은 청소년의 신앙 발달단계와 맞지 않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정서적 발달

신앙의 발달단계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Fritz Oser, Bruce Powers, Thomas Droege, John Weserhoff III 등이 다양한 신앙 발달단계를 제안했다. 청소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증진 추구, 또래 신앙인들의 영향, 믿는 권위에 의존, 수동적 공동체 속에서 활동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은규는 신앙의 성장을 지속적인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제임스 로더는 신앙은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누구나 정서적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 한다.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고통으로 하나님이 마치 부재한 것처럼, 아니면 문을 퐁퐁 걸어 잠그고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나치의 통치를 경험한 마틴 부버는 이 처참한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던지며 하나님은 더욱 더 베일에 감추어지고 우리로부터 멀어져 갔다고 기록했다. 청소년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월호나 여러 사고로 죽는지 궁금해 한다. 이들은 정서적 갈등, 고통,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상황들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3. 도덕적 발달

토마스 그룹은 신앙이 근본적으로 정의와 도덕을 요구한다고 했고, 존 스토틀는 기독교 윤리의 정수인 산상수훈을 해설하면서 세 가지 질문(산상수훈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절한가, 그 기준들은 도달 가능한 것인가)을 던지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였다. 제석

봉은 교육의 주요한 교육목표 중 하나로 도덕발달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교육에서 도덕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한 대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들은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 면에서 신앙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공교육은 이러한 청소년을 도울 수 없다. 교회와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만 힘들어 한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자녀 양육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김동기는 아버지가 종교성을 지속시키는 모델 역할이나 종교 거부 모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음을, 파커 파머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조건도 만들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앙교육을 위해 부모와 교사는 자녀 또는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 파울러 프레임의 주장처럼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 성찰과 행동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먼저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폴 히버트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명시적인 믿음이 변형되어 복음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는 데 충분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종종 똑같은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명시적인 믿음 밑에는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방식과 그들의 사고의 범주 및 논리를 좌우하는 더 깊은 문화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일은 행위, 믿음,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세계관 등 세 가지 차원에 서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 세대는 자기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서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알버트 월터스와 마이클 고헌은 “세계관의 정립은 언제나 인간적 차원의 성찰과 구축 작업이 될 것이다. 세계관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데 비해, 세계관은 교회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려고 복음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는 인간적 시도일 뿐”이라고 했다. 신국원은 성경의 세계관은 본래 이야기 형태인데 그동안 자칫 철학 이론처럼 굳어지는 경향을 보여 왔기에 다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철학적 딱딱함이 아닌, 삶을 성찰하고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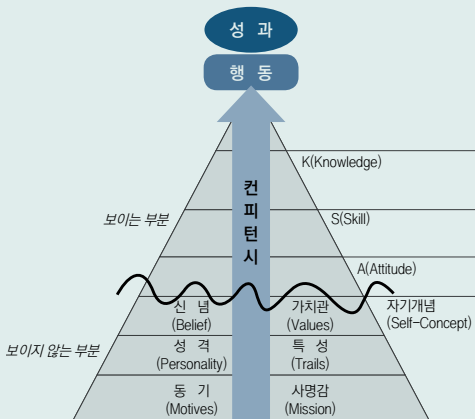
둘, 청소년 신앙교육을 위한 대화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까? 이는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때 가능하다. 청소년 신앙교육의 이슈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교회에 대한 거부는 신앙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표준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일 수 있다. 따라서 권위적인 가르침보다는 스스로 신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나눔 중심의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끊임없는 성찰과 행동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목회자들은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과 함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는 어휘와 고민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동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질문을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설교나 공과공부와 같은 접근이 아닌 비판적 대화로 청소년들이 직접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기독교교육기관의 역량기반교육에 대한 고찰

역량기반 교육의 배경

역량이란 용어를 처음 교육훈련분야에서 사용한 사람은 유명한 조직심리학자인 맥클랜드(McClelland)라고 한다. 그는 1973년 “미 국무성 해외 초급공보요원 선발에 관한 실증 연구”란 논문에서, 전통적인 학업적성 검사나 성취도 검사가 업무성과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얼마나 아는가’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선발시 시험(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역량을 “통상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보통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과 다르게 보여주는 행태나 특성”이라 개념화하였고 이후 관련 논의가 발전되어 주로 조직과 기업(행정학이나 경영학 분야) 영역에서 통용되어 왔다.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종합하면 역량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직의 성과기준에 대비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의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림 4-1〉역량의 개념

“역량”의 개념은 그 출발의 배경과 정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직업세계에서의 고성과가 그 추구하는 바이며, 조직에게는 체계적인 훈련과 효과적인 인사관리(HRM)를 위한 유용한 틀을 제공하기에 많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활용하고 있다.

인사관리분야보다 앞서 교육에서도 유사한 접근 방법이 활용되어왔다. 초점의 차이는 있으나 60년대 행동주의에 기반한 체계적교수설계(Systematic Instructional Design)에서는 관찰 가능한, 혹은 측정가능한 학습의 성과들이 교육훈련이 추구해야하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performance) 혹은 행동(behavior)을 명확한 학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설계, 개발, 실행, 평가하는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 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교육공학이라 하는데, 투입대비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엔지니어링적 접근방법을 교육에 접목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역량의 개념을 교육 현장에 적용한 것이 역량기반교육이며,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공교육에도 추진되고 있어 기독교대안학교들에서도 관심이 높다. 요약하면, 역량 혹은 측정가능한 교육훈련의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은 물론 이후의 과정(예: 시험과 같은 평가와 취업추진을 위한 인증)까지도 연계하겠다는 것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의도라 할 수 있겠다.

시계를 좀 더 과거로 돌려 보면 이런 접근방식은 산업혁명과 산업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산업혁명 전에는 교육은 소수에게만 접근이 가능한 특권이였다. 근대 이전의 교육은 종교기관의 교육을 제외하고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도제식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산업화는 대량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단기간에 배출할 것을 필요로 했고 따라서 교육은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 따라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 세트(batch)로 ‘생산’되는 오늘날의 ‘공장식’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실제로 실용주의 관점에서 직업능력을 키우는 것이 20세기의 학교는 주요 역할이 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특히 영국의 원로화학자이자 교육가인 켄 로빈

1 그의 TED 강연 ‘학교가 창의성을 죽인다(Do Schools Kill Creativity)?’와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Changing Educational Paradigms)’을 시간을 내어 들어 볼 것을 권한다. TED사이트에서는 전세계 주요 언어 자막을 제공한다.

슨¹⁾은 개인의 차이나 특성, 원함과는 관계 없이 유사한 인력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되어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나아가 혁신을 막는 장애요소가 된다고 비판하였다.

고등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이나 시장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공학을 비롯한 응용학문 분야와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는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배출해 내는 인력은 노동시장이라는 곳에서 고객(주로 기업)을 만나게 되는데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고객들에게 우수한 인력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게 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사의 핵심이 되었다. 이를 위해 고성과의 요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강구하는데 역량이라는 개념과 평가방법 및 훈련 방법이 매우 유용하니 역량기반 훈련을 기업과 조직에서 활용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 한국도 전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역량평가와 그 결과에 기반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많은 대기업들에서도 임원 및 관리직 직원에게 역량강화를 위한 역량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국 역량의 개념이 중고등학교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졸업 후 직업세계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고객에게 분명히 보여 줄 필요가 있어서다. 즉, 이 인재가 기업이 원하는 성과를 가져다 줄거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역량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사업이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지향점을 이해하고 나서 다시 역량기반 교육을 바라보자.

우리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역량을 키우고, 능력을 배양하고, 기업의 성과를 이끌어 낼 훌륭한

한 인재가 되어 삼성, 현대를 비롯한 우수한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치자. 각계각층의 주요한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자.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런 자리에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성과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역량을 기르는가? 조직의 성과를 내는 개인이 특질이 '역량'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성과'는 무엇일까? (조직의 성과가 나의 믿음과 상충될 때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날의 사회상과 우리의 지상 명령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사사기 시대와 같은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을 둘러보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세상은 성경의 사사기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사 17:6, 21:25)" 행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상숭배와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회상 가운데 특히 아래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을 그대로 지적하는 듯하다.

첫째, 성경시대의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명하셨음에도 이들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하다. 게다가 빈익빈 부익부의 흐름은 이들을 더욱 양산하고 있다.

둘째, 약자의 편에서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관은 전관예우와 같은 인습에 아직도 붙들려 강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내리고 있다. 국가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신뢰의 시스템이 망가진 것은 아닐까? 과부가 살길이 없어 아이들과 목숨을 끊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에 호소할 수 없는 시스템은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 두고 밭의 구석은 추수하지도 밭것을 명하신 아버지의 배려와는 정말 거리가 멀다. 주주자본주의로 특징지어 지는 최근의 현상들을 바라보면 더욱 약자



김아론 경희대 플로리다 주립대를 졸업한 교육공학 박사로 현재 씨드연구원(SEAD Institute) 대표이자 수석연구원이며, 실크로드희망교육연대 이사이다. 전(前)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원격교육실(Office of Distance Learning) 교수설계자 및 평가팀장 및 시티뱅크 남미 교육훈련센터 컨설턴트,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학습 시스템 연구소 (Learning System Institute) 연구원을 역임했다.

보다는 이미 충분히 가진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20세기 산업사회의 수요에 기반하고 있고 현재는 후기산업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주요한 특징은 주주중심 자본주의, 대기업 중심의 시장, 글로벌 기업(즉, 국적과 정체성이 불분명하여 애국심으로 국내기업을 돕는다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경쟁의 심화,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을 들 수 있겠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점점 더 사회적 책임을 피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만 같아 걱정스럽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옆자리의 친구와도 경쟁할 것을 강요받으며 자라고 있으며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역량”을 갖추어 좋은 직장(조직)에 자리잡는 것이 지상목표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데 최적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우 복잡한 문제지만 아주 단순하게 “조직의 성과”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결국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에게 성과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고역량의 인재를 거두어 더욱 고성공을 낸다는 것은 고작 그 ‘성과’를 내는 소수의 사람들과 주주의 이익을 늘려주는 것인가?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직장을 얻었지만 나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 현상들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재직 당시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등 뜻을 같이한 부호들과 함께 270억달러의 거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 왜 그런 거액을 기부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믿는다. 모두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다는 것을.” 안전을 위해 창살과 벽을 만드는 것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나와 나의 자녀들을 위해 더 현명한 투자라는 설명인 것이다.

나날이 정글이 되어 가는 우리나라를 바라본다. 당연히 세상은 모를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정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어떤가?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해 모두에게 좋은 사회를 만드려는 미국의 부자들은 아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사사기의 책망은 그 시대의 이방인들이 아닌 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의 사회적 시스템은 “늘 우리와 함께 있을 것”라고 하신 가난한 자들을 분리하고 보이지 않게 담을 쌓고 있다. 불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를 둘러보라. 그곳에 눈에 띄게 행색이 남루한 사람은 없다. 장애인도 없고, 외국인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인 사랑을 지적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심으로 사랑을 “연습”하도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이웃들로 주셨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한손에는 성경을 한손에는 신문을 들라”했다. 우리의 믿음이 사회나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라 믿는다. 월드뷰와 기독교학술동역회의 사명 역시 믿음과 삶의 통합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역량기반 교육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 나아가 기독교 교육기관의 정책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역량을 말하기 전에 그 역량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 답은 세상 학문에 있지 않다. 당연히 “주인”에게 있다.

지상명령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지향하는 성과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단연코 우리의 부름이 아닐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궁극적 기준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제자라면 말이다.

우리는 자신을 향한 지상명령과 생명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위임(commission)이 있다.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고 있으며 제자로 살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시대 복음주의 지성 중에 지성이라는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그의 저작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모두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에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이 모든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여지 없이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가운데 ‘Great Omission’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 『잊혀진 제자도』의 원제목은 ‘Great Omission’이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이 원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키워 세상을 바꾸는 아

이들로 키워야 하는가?

귀한 자녀들을 고이 길러 물목에게 바치는 형국이다. 미디어에, 경쟁에, 욕심에, 인생의 즐거움에 그냥 내어 놓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인재들로 키워내고 있다. 비전이 없고,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어 예수의 좁은 길을 좇을 수 없다면 제자가 아니다.

지상명령은 교육을 향한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기에 우리의 지상명령은 전도나 선교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이 우리의 지상명령이다. 부모나 교사들만 교육이 순종해야 할 명령이 아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데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리스도인 모두 교육의 의무가 있고 할 일이 있다.

역량에서는 지식, 기술 외에도 조직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고 자신의 행동을 그에 정렬하고 주변의 조건을 그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고성과자의 비밀이라고 한다. 역량에 관한 한 한국 최고라는 전문가 한 분은 역량에 ‘실존적 존재’와 ‘영혼의 능력’이라는 흥미로운 정의를 더하였다.

기계나 사물과 달리 인간만이 기능이나 기술 그 이상의 성과를 도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란 ‘실존적 존재’로서 ‘영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역량을 이해하는 데 다른 정의들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영혼의 능력은 1) 자기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능력, 2)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며 실존적 존재라는 의미는 1) 환경과 경험의 의미를 인식하는존재, 2) 자유, 선택,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역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도 일상이 될 수 있다는 무한한 잠재력,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 믿는다. 또한 제자로서의 태도와 헌신이 결정적으로 다른 성과와 임팩트를 가져오게 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결코 알수도, 가질 수도 없는 진정한 역량임을 잊어서는 안되고 이것을 기르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역량 모델링

역량기반 교육훈련에서는 역량모델링이라는 방법을 통해 성과를 내는 역량의 실체를 파악한다. 기독교교육기관이 혹은 교회가 역량기반교육을 위해 역량모델링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고성과자로 설정하고 모델로 삼을 것인가? 가장 먼저 모델링을 해야하는 분은 단연 예수님 이시며, 더불어 시대시대를 제자로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어떻게 장애와 위협과 도전을 극복하고 세상을 바꾸었고 사람들 살렸고 불의에 대항하였는지를 모델링하고 그 역량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세상에 가져다 준 열매와 변화들은 진정 사람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었다. 그런 것들이 지향하는 성과가 되고 그러한 역량을 길러내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이 세상에 줄수 있는 복음이라 믿는다. 그리스도인들의 역량기반 교육은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역량기반 교육훈련은 기업이나 조직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왔고 최근 들어서는 비영리단체(NPO)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성과와 역량에 대한 논의들도 많다. 세상은 다양해지고 전통적인 직업과 직장의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다. 창의성과 혁신에 목말라하는 세상을 향해 진정 변화의 동력이 무엇이고 역량이 무엇인지 보여 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세상 교육도 새로워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요즘의 교육이 역량을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혹은 대세라고 해서 그저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더 연구하고 기도해서 사람과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과정과 방법과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한다. 역량기반교육이 아닐수도 있다. 유행이 지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금방 또 나타날 수도 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육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누구나 역할이 있다. 특히 교육에 헌신한 분들라면 더 고민하고 기도할 때이다. 이 일에 헌신한 동역자들과 함께 조금씩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_엡 3:17-19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저자 알버트 E. 그린 | 역자 현은자 외 2명 | CUP | 정가 12,000원
원제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 a transforming vision

기독교 학교 교육의 목적은 단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얻게 하는 데 있지 않다. 기독교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도록 돕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성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학생들의 성장은 창조와 구원이 조화를 이루고, 학생들의 삶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표현되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더욱 깊어가는 경외심과 그분에 대한 더욱 많은 찬양과 봉사로 드러날 것이다.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저자 해로 반 브루멜른 | 역자 이부형 | IVP | 정가 22,000원
원제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기독교적 교육과정 기획의 모든 것. 기독교 세계관이 매일매일의 수업 계획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독교적 교육과정 실천 매뉴얼. 이미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학계에서는 그룹 스터디나 연구 교재 등으로 사용되며 관심을 받아 온 책이다. 수많은 기독교 교사들이 진가를 인정하는 책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로 익히 알려진 저자는 실제 학교 및 학급의 사례들과 연결지어 교육과정 기획과정을 차근차근 안내한다.



기독교학교교육론

저자 박상진 | 예영커뮤니케이션 | 정가 14,000원

‘기독교학교교육론’은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독교자로서, 학부모로서, 학교설립자로서,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내한다. 또한 기독교학교교육에 대한 개론서로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기독교대안학교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나 자원이 실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공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포함하여 그 실천의 견고한 기초를 확립한다. 이 책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눈을 열어 가슴 벅찬 새로운 교육을 바라보게 하고, 기독교학교교육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공부하는 기독교교육학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학교교육으로 나아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저자 해로 반 브루멜른 | 역자 안종희 | IVP | 정가 20,000원
원제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지난 20년간 수많은 교사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한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의 전면개정판이 출간되었다! 그리스도인 교사의 역할은 단지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나, 성경에 나온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교실과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실질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으며, 기독교 교사로서의 소명을 재정립할 수 있다. 교육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처음으로 접목시키고 기독교적인 수업과 교육과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온 해로 반 브루멜른 교수의 각고의 노력이 집약된 결정체로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던 교사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누구세요?!”



제1회 컨퍼런스, 1984

지금으로부터 30여 년전인데요.

1984년, 부천 역곡에서 한참 일반 학문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인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첫 컨퍼런스를 열었었지요.

당시 학문 세계에는 ‘기독교적’학문이라는 말조차 없었고,

신앙과 학문은 별개라 생각했었죠. 그때 이런 꿈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을 세우자, 어떻게 세울까?

아니야, 대학을 세워드 교수가 있어야 가능하지.

우리 중에 누가 교수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 중에 기독교적 관점으로 자기 영역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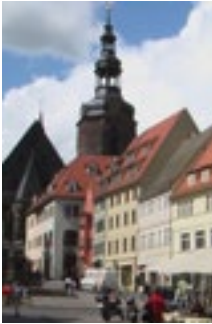
꿈을 이야기하던 그 청년들.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세대를 키우는 교수가, 학자가, 학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세계관동역회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도시를 가다

#1. 아이스레벤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지금 시대에, 종교개혁의 슬로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었던 개혁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하늘도 가로막을 수 없는 난세의 영웅이라 하더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웅이라 하

더라도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천 년 가까이 견고한 성채처럼 유지되어 온 제국을 말이다.

나약해도 너무 나약한 한 인간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에서 핏덩이로 태어나고, 젖 먹이로 어미의 가슴을 의지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며 직립보행을 연습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연약한 모습의 인간이 어떻게 천 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던 말인가! 그 어떤 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그 어떤 하늘의 기운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이 역사(役事)를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사였던 것이다. 종교개혁(Reformation)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일으킨 큰일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보통 사람,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날 것이 없었던 루터라는 보통 사람이 있었다.

루터(Martin Luther)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중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아이스레벤(Eisleben)에서 태어났다. 이 도시는 주변 도시에 비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북쪽으로 십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만스펠트(Mansfeld)에는 탄광이 있어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남쪽으로 오십여 킬로미터 떨어진 에어푸르트(Erfurt)는 당시 독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였다.

아버지는 한스 루터, 어머니는 마가레테였는데 부모는 만스펠트에서 잠시 이곳에 와 있던 중 큰아들을 낳은 것이다. 이듬해 루터는 유아세례를 받았다. 아이의 뇌리에 남아 있는 부모는 힘겹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일에 지쳐 피곤했고, 어머니는 종종 가사를 위해 나뭇짐을 날랐다고 어린 루터는 기억한다. 루터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성당 미사에 다녔다. 이름없는 소도시, 평범한 가정의 한 아이, 그가 나중에 역사를 뒤흔드는 자리에 있게 될 줄 누가 예견할 수 있었으랴



※ 이 글은 <연합기독뉴스>에 실렸던 글임을 밝힙니다.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내 환자 린다씨

묻고 답하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3)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우리의 비참함

Be-Live-r

고전에서 길을 찾다, SICA 이경원 원장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프로파간다



내 환자 린다씨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내 진료실로 들어온 건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이다. 지역 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였다. 두툼한 이전 진료기록들을 살펴보면, 나는 한동안 이 환자를 어떻게 진료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당시 그녀는 이미 여러 명의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그들 모두로부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라, 나로서도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린다(가명). 40대 중반의 여성이며 근육통, 만성적인 피로감, 관절의 통증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아직 갱년기 증상은 없었으며 이전의 무수히 많은 검사들을 통하여 신경과근육계통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증상의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등이 시행되었으나 그녀의 증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가며 진단과 치료를 위한 단계들을 지나왔건만 검사결과는 모두가 정상이라는 결론과 그녀의 증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역설이 대립하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할 때 검사 결과상 명확한 이상이 있어서 질병의 확실한 근거들을 찾아내면 일종의 안도감을 느낀다. 물론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검사 결과에 간 기능이상, 염증, 종괴등의 이상소견이 있으면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순서가 있어 그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치료 결과를 검사결과나 증상의 완화등으로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증상은 있지만 검사결과들이 정상으로 나오면 다음 단계를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 마음의 영향이 배제된 현재의 생의학적 패러다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린다같이 불편한 증상은 있는데 검사결과 상 정상으로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환자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통상적인 패러다임의 진료체계에서 놓칠 수 있는 다른 검사방법이나 ‘그’ 환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진단적 체계를 새롭게 짜서 영적, 사회 심리적 요소부터 신체적인 면까지 면밀하게 재조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만의 상황과 신체적인 증상의 연관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진료체계에서 이런 진료를 하기란 매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두 번째는 “대부분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이니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별 이상 없는데 건강염려증이 아니신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시군요. 검사 이상 없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다음번에 검사 한 번 더 해봅시다.” 등등의 말로 넘어가게 된다.

린다가 내 진료실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긴장되고 약간은 의심하는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나는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 대개 이런 환자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환자를 기다리게 한다는 부담을 가득 안고, 일단은 그녀에게 집중하자고 다짐하며 진료를 시작하였다. 가져온 진료기록북 곳곳에 붉은색으로 네모 세모 등의 표시가 있고, 그 옆에 본인이 그 소견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표시도 해 놓고 있었다. 굉장히 꼼꼼한 환자라고나라고 생각하니 평상시처럼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해 약간은 연민의 정을 느끼며 질문을 이어갔다.


그녀는 분노하고 있었다. 자신은 분명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의사들은 그녀의 생각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가 괜찮은데 왜 불편하다고 생각하냐는 것이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니 당신은 정상이고, 정상인 자신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그녀는 분노하고 있었다. 또 다른 분노는 무관심이었다. 의사들의 무관심. 자신이 생각하는 질병이 아니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식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아직 몇 마디 문진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의사들에 대한 극심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녀의 기에 눌러 자꾸만 작아지고 있었다. 당시 머리 속에서는 이 상황에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를 찾느라 뇌세포가 기진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곧 적당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설교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린다는 자신이 만난 의사들의 일관된 태도 때문에 자신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의사들은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미리 예측하고 있는 질환군에 환자의 이야기를 맞추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자신이 예측하고 있는 질병의 패턴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무관심해지면서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으면 정상이라고 선언하고 더 이상의 심사숙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계속 듣고 있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진료실은 환자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의사들의 생각도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중요한 진료의 단계는 현재의 의료보험체계에서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다. 환자들 또한 검사 위주의 의료체계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서 잠깐의 문진과 검사 위주의 진료가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침단을 자랑해도 이제 이런 형태의 의료는 넘어서 수 없는 질병의 산맥 앞에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과대학에 다닐 때, “환자를 질병의 증례로 보지 말고 질병을 가진 한 인간으로 대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정말 의사로서 그 말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명제인 것 같다. 자기 자신이 질병을 가진 의사의 경우, 위의 말이 뼈저리게 느껴진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의사가 환자가 되어 경험할 수는 없는 법. 검사 결과로서의 인간이 아닌, 질병을 가진 인간으로서 환자를 보게 되는 현장이 넓어지기를 꿈꾼다. 그래서 린다 같은 환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전인적 상황들에 대한 깊은 경청과, 인격적인 진료의 현장을 꿈꾸며 오늘도 또 다른 린다를 맞이한다. 

※ 본 글은 미국의학협회지에 실리는 의사들의 진료단상인 “A Peace of My Mind”라는 코너에 실린 “Patients Like Linda”라는 글이 모티브가 되었으며, 그 글에 저의 경험과 이야기를 첨가하여 편집과 각색을 하였습니다. 원래의 글을 보고 싶으신 분은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uly,9,2003_Vol.290, No.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맨 처음에 사람의 위로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평범한 말로 풀어내고(1문), 이어서 그 내용을 '비참함-구원-감사'의 삼중적인 관계로 제시하였다(2문). 그 다음에 나오는 3-4주일은 '죄와 비참함'을 다루는 부분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선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에(6문) 사람의 비참함에 대하여 알려 주고(7, 9-11문)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는 일에 소망을 두게 한다(8문). 이처럼 죄와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창조'와 '구속'의 주제를 다룬다. '창조-타락-구속'을 단계적으로 딱딱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6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그대로 복창하는 표현이다. 첫째, "하나님이 그 지



김현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윤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하신 말씀에서 ‘좋았다’나 6문의 ‘선하다’는 같은 단어이다(영어의 good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악과 패역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없다.

둘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도 창세기 1:26-28의 내용을 복창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 1:26). 이 구절에서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일’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일’과 연결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다.

형상과 통치권의 밀접한 관계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이 단어의 용례와도 일치한다. 당시에 ‘형상’이라는 말은 외모가 닮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법적인 대리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우상도 ‘형상’이라고 불렸는데, 그것은 우상이 그 지역에서 신을 대리하는 자라는 뜻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분의 통치권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살도록 지음 받은 피조물이었다.

6문에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가르친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 마음으로 사랑하며,
-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 그리하여 그분께
-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알고-사랑하고-함께 살고-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중 세 가지인 ‘서로 알고-사랑하고-함께 사는 것’은 다른 아닌 가족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여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간다.¹⁾



그림 1. 요한 칼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교제로 설명하였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치권과 연결하여 이야기하는 한편, 요리문답에서는 언약의 교제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 모순이나 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여 언약의 교제를 나눌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잘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과의 긴밀

1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를 나누는 관점에서 잘 해석한 책은 다음을 보시오. Jason Van Vliet, Children of God: The Imago Dei in John Calvin and His Context (Vanderhoeck & Ruprecht, 2009).

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일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 더욱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자들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뵈면서 교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할 것이다(계 22:5). 그날에 왕 노릇 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직접 그분을 뵈고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다.

네 가지 목적 중에 마지막인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앞의 세 목적에 모두 걸리는 표현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함께 사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 "창조의 주된,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이다."²⁾



그림 2. 우르시누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설명하였다)

사람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자랑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1, 9)하면서 찬송을 드렸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지내게 될 것이다(계 21:3). 장차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뵈고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2. 고의로 불순종한 인간

9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꾀에 빠져

고의(故意)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지음받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금령'을 주셨다.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이로써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따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2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80; Ursinu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28.

선악과 금령은 지키기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한다면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선 선악과 금령으로써 아담에게 생명과 사망을 가르쳐 주셨다. 아담이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었지만, 반대로 그 명령을 지키면 생명나무로 표시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아담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인류의 대표로서 사망과 생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담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한 범피 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부정적인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3.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날 인간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8문의 질문에서는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철저히 묻고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답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요리문답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것처럼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비참함을 그토록 깊이 있게 가르치지만, 그 과정에서 성신으로 새롭게 되는 복음을 가르쳐 주고, 역으로 말하면 복음의 빛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않는 한”이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성신의 사역을 통하여서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엄격히 가르치는 것은 성신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전적인 타락에 대한 대안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성신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변화이다.³⁾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그러하였듯이,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 수 있다. 창세 때의 언약의 교제가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에게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성신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재창조된’ 사람이다(엡 2:10). 이러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성신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성신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53, 65문).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일도 말씀으로 하신다.

4. 이원론적 이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진술은 명확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양하다. 로마 교회에서는 ‘자연’과 ‘은총’, ‘영혼’과 ‘육신’을 구분 짓는 이원론적 구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구분하여 가르쳤다. 그들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고 다만 ‘덧붙여진 은사’(donum superaditum)를 상실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불신자와 신자가 공유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고 교회가 베풀어 주는 특별 은총 영역이 있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1층과 신자만 접근할 수 있는 2층이 있는 건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실제로 중세의 마을 구조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양 중세의 마을 구조를 보면, 촌락의 한복판에 성당이 높이 솟아 있었다. 일상생활은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하더라

3 성신으로 말미암은 급진적인 변화에 대하여서 요리문답은 특히 1, 32, 86, 115문 등에서 잘 가르친다.



그림 3. 토마스 아퀴나스 (하나님의 형상을 이원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도, 특별 은총을 얻으려면 높은 첨탑이 있는 성당에 가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중세의 사고방식은 당시 촌락의 구조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한 시대에 종교개혁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바르게 드러내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서도 사람의 영혼과만 관련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과 관련하여 가르쳤다. 즉 사람의 영혼 및 지성과 관련하여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알고-사랑하며-함께 살고-영광 돌리는' 언약의 교제로 설명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이원론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신자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면서 살도록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되, 삼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한 것이다. 



그림 4. 16세기의 제네바 (도시의 중앙에 고딕 성당이 우뚝 솟아 있다)

고전에서 길을 찾다 이경원

에디터 (이하 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길을 고전교육에서 찾으셨 습니다. 기독교 고전교육의 명가, 서울국제기독교 학교(SICA) 이경원 원장님, 처음 여쭙는 것 같습니다. 신앙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경원 원장 (이하 이)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집 앞에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 바람에 좋은 교회에서 자라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이 고(故) 옥한흠 목사님 사택 바로 앞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건 초등학교 졸업하는 겨울 수련회 때였어요. 그 이후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잘 받았어요. 고등학교 주일학교 교사 중엔 방선기 목사님도 계셨어요. 박영선 목사님의 영향도 받았고요. 그분들의 영향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쉼퍼, 존 스토틀의 책까지 두루 접했지요. 매주 듣는 좋은 말씀에 성경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교회를 세 번은 갔던 거 같아요. 그렇게 10년 정도 훈련을 받으니, 대학생 시절에는 이미 세계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에 **세계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더불어 <월드뷰> 애독자라고도요. 이는 것과 세계관이 발현되는 것은 다르잖아요. 삶의 어느 순간이 계기가 되셨나요?**

이 **아무래도 계기가 됐던 건 아이들을 키우면서였어요. 나는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12년간 한양대에서 음악을 강의했는데, 그만두고 홈스쿨을 시작했어요. 거의 1년간 남편과 같이 각종 자료를 뒤졌습니다. 현재 SICA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은 대개그 시절에 찾은 교재들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저희 아이들에게 적용한 거죠.

아이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일반 심리학, 교육학 책을 많이 봤습니다. 교대서 공부하던 교회 친구와 같이 스키너와 매슬로우를 공부 했는데, 그들은 아이들을 종교적으로 키우다 보면 창의성이 떨어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비판이 제게 굉장히 합리적인데 보여 폭 빠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한대로

BE+Live+,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여기, 그렇게 살아가려 부단히 애쓰는 오랜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키웠죠. 당시엔 육아서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 보니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때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다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바뀔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니 좌충우돌도 했죠. 아이들 입장에서 어머니가 왜 갑자기 신앙을 강요하나 싶었을 겁니다. 그때 느낀 것 중 하나가 아이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흐름에서, 혹은 대학 진학 등 인생의 큰 기로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있잖아요. 어릴 때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는구나 싶어 세계관에 더 깊은 관심이 생겼고, 이를 교육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에 특별히 고전교육을 강조하십니다. 왜 고전교육인가요? 고전교육에 관심을 가진 계기와 이유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 유학 중이든 한국에서 공부할 때든, 어떤 어려움이나 한계점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약하니까 문제의식 위에 뭔가를 쌓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쌓더라도 이내 또 다른 한계에 봉착하게 됐고요. 기초가 없으면 문제를 풀어낼 사고력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의식을 너무 늦게 깨달아 기초를 너무 늦은 나이에 배운다는 겁니다. 저 역시 그걸 대학교에서도 제

대로 못 배웠으니까요. 물론 시험에서 점수는 잘 나왔겠지만,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인으로서 신앙인으로 서 방향성이 문제였어요.

제 기초가 약하다는 것을 음악을 배울 때도, 훗날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을 고전에서 다 설명하더라고요. 고전교육은 모든 공부의 주춧돌로 그 영향은 이곳저곳에 다 연결이 되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더 고민하게 되더군요. 게다가 교육내용이 시대마다 바뀌는데, 왜 교육은 매번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를 중심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적인 사항들은 얼마든지 덧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에 대해 먼저 가르쳐야지, 기술적인 교육이 주(主)가 되어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겁니다.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저희 고문 교수님 중 성서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데, 성경에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나?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 시스템으로 보면 죄인들과 먹고 창녀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은 신성모독적인 행위였어요. 어떻게 죄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느냐? 그들은 자신들을 죄인들과 격리시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바로 교육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트리비움(Trivium)은 고전주의의 방법에 관한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인간이 만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끊임 없이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전교육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입고출신(入古出新)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전으로 돌아가야 거기서 비로소 새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와 책을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전교육의 핵심은 성경의 원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성경을 아는, 적어도 크리스천들이 이곳에 올 수 있겠네요.

이 원칙적으로 부모가 모두 크리스천이어야 가능합니다. 일반 미션스쿨들은 전통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사람들을 받기도 했고 그것이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지금은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정도에서 그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세계관이 변화된, 기독교적 관점을 갖고 본인의 분야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되어야 해요. 저희의 교육방법에 100% 동의해주셔야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데, 두 분 중 한 분만 동의하는 경우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나아가 교회나 기독교적 영역에서만 마음을 쏟고 삶은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삶의 전 영역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현실에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두렵고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존재라는 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시킵니다.

예 교과목 편성이나 커리큘럼에서 고전교육의 독특성이나 다른 교육과의 차별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일단 모든 과목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을 역사 기술에 할애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같이 설명합니다. 교과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사회, 지리, 미술, 음악, 문학 등을 역사와 함께 설명하죠. 역사를 주축으로 잡아놓

고 그 시대에 맞는 내용을 넣어 커리큘럼을 구성해요. 영어의 경우 문법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되도록 문학으로 접할 수 있게 해요. 국어는 완전히 문학으로만 가르치고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영역이 정해진 과목들은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창조론에 기초를 둔 교과서로 가르치죠. 수학은 창조론에 기초를 둔 교과서가 나오진 않지만, 수학적 법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설명합니다. 우주가 단순히 카오스가 아니라 굉장히 질서 정연하다는 걸 수학적으로 설명하죠. 우리는 나무가 그냥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나뭇잎의 90%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르잖아요? 창조질서의 아름다움과 기능적 탁월성을 하나씩 배우면 수학은 단순히 어렵고 지루한 과목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관점이 수업시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는 게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들도 해외에서 수학하게끔 하고요, 언제든지 자신의 영역을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합니다. 책만 읽는다고 관점이 생기지는 않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성경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여기 오신 분들,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든 잘 교육하려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충분히’가 아이들로 하여금 지성을 사랑하게 해요. 본질을 알게 됐는데 아이들이 기쁘지 않겠어요?

예 이런 교육과정이 원장님께서 음악을 전공하신 것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이 제가 음악 공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물론 지금은 음악의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이지만, 음악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음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발견

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묻게 되고,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과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 분야에 10개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한 개밖에 못해요. 많아도 두 개예요. 그런데 한 개밖에 전공하지 않은 제가, 수학과 물리를 감히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지만 음악적 상상이 수학·과학적 상상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가 ‘창조질서’로 다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원장님께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꼭 지키려 노력하는 하나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새벽시간에 기도는 지키려 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때에도 그 시간에 가장 많이 기도해요. 급한 일, 위험한 사건, 도저히 혼자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있을 때 항상 무릎 꿇고 있드리죠. 인간적인 좋은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봤는데도 길이 안 보이니까요. 그 시간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못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음악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학에서 나온 상태라 음악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기독교를 변증한 거였더라고요. 음악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실재인지 가르칠 때도 나름대로 변증하려 했고, 그것이 제가 이 일에 뛰어들어 이유였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골짜기를 메우시더라고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논리적으로 따져도 제가 능력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제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기독교 고전교육, 유초중고등교육기관

서울국제기독교학교(SICA)

홈페이지 www.sicakorea.org | 입학상담 02-577-7710

땡스북이 만난 올타리 밖의 책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땡스북'은 사단법인 땡스기브에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작합니다. '땡스북'에서 선정한 인문도서를 매월 '월드뷰'에서 소개합니다.



● Recommend

프로파간다 에드워드 버네이스 지음 | 강미경 옮김 | 공존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조카이자 'PR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대표작입니다. 대중심리학에 정신분석학을 결합하여, 최초로 선전과 홍보에 이용해 선전의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면서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전과 홍보의 고전이자 베스트셀러로 80여 년 간 읽혀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해주는 책입니다.

Thanksgive's Think

거짓말도 천 번이면 진실로 들린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어간다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하지만 강도의 손에 들어간다면? 흉기로 돌변한다. 어떤 물건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닿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든다.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을 배려하느냐, 아니면 그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느냐에 따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한다.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선전 전략인 '프로파간다'도 마찬가지다. 한 종교의 선전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 전략이 기업에 사용되면서 선전 전문가까지 등장했다. '프로파간다'로 유행이 변하기도 했고 기업은 소비자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었다. 게다가 결핵 퇴치, 암 예방 캠페인 등 대중에게 사회공헌 활동을 알릴 수 있게 돼, 공중 보건 향상과 사회 구성원 간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됐다. 프로파간다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도 사용됐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쟁 포스터 한 장은 파급력이 컸다. 심리를 자극하는 선전 전략으로 전쟁 지원자가 늘어났고 나치의 선전 장관 괴벨스는 라디오, TV를 이용해 히틀러에 대한 찬양과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선전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치에서만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선전을 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선전을 한다. 이른바 자기 PR 시대. 목적 달성을 위해 선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선전인가 하는 데 있다. '거짓말도 천 번이면 진실이 된다'고 괴벨스는 말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선전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keyword

대중의 심리 | 여론 주도 | 히틀러 | 괴벨스 | PR 전문가 | 신뢰를 주는 선전

Thanks Book

맵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맵스북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맵스북

우리는 압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해매게 됩니다. 맵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교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맵스북을 권합니다.

맵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종교개혁 읽기 『꺼지지 않는 불길』

종교개혁의 현장 속으로



마이클 리브스 지
박규대 역
북있는사람

우리가 속한 개신교(改新敎, Protestantism)는 한자어로 ‘고쳐서 새롭게 한 종교’, 영어로는 ‘저항운동’이라는 의미다. 이 단어에는 악습을 끊고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루터가 주도했던 개혁의 역동성이 담겨 있다. 거기서부터 생성된 가치와 구조는 힘찬 물줄기가 되어 45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 곳곳에서 도도히 흘러 파도치고 있다. 한국 개신교도 분명 한 세기를 호령했던 그 개혁의 물결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종교개혁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거나, 기껏해야 단편적 지식의 조합으로 상당 부분에서 왜곡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마이클 리브스(Michael Reeves)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하 『불길』)에서 종교개혁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제를 독자에게 선물한다.

마이클 리브스는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이나 영국 복음주의의 정통을 잇는 차세대 주자로서 왕성한 강의와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의 강의와 저술은 그의 주된 관심사가 종교개혁을 잇는 신학에 있음을 말한다. 『불길』에는 리브스의 이런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본서는 총 7장으로 편집되었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1장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두 번째 부분은 2장에서 6장까지 여러 개혁자들을 소개하며, 세 번째에서는 종교개혁이 현대교회에 미치는 지속적인 의미를 파헤친다.

첫째 부분에서 저자는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중세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추적한다. 많은 이들이 ‘중세=암흑기’로 단순화시켜 규정하고 종교개혁이 암흑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였다고 쉽게 결론 내린다. 또 다른 편에서는 중세 민중의 종교는 매우 긍정적이었기에 종교개혁은 일단의 무리가 주도하는 반정서적 운동이었다고 치부한다. 저자는 이런 양 극단의 견해를 비판하며, 당시 로마교회와 중세시대를 감상적으로 판단하려는 시도를 멀리하며 종교개혁이 오기까지의 역사적 진술을 통해 태동의 정당성을 독자에게 호소한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은 단순한 도덕 갱신 운동이나 완전한 새로운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선인들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열망이 하나로 모여져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와 세상을 바꿔 놓는” 말씀운동이었다.(p.30) 안 후스나 존 위클리프는 본서에서 중세와 종교개혁을 잇는 주요 인물로 다루어진다.

저자는 이어 종교개혁의 다섯 주제에 따라 그 성격과 유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마르틴 루터 / 율리히 츠빙글리 / 장 칼뱅 / 영국의 종교개혁 / 청교도, 이 다섯 개념이 종교개혁의 전부는 아니나 이것들 없이 종교개혁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저자는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후세대에 걸쳐 있는 상이한 인물과 주제를 자신만의 뛰어난 역사진술 방식으로 현장감 있게 소개한다. 저자는 다소 복잡한 역사적 사건도 평신도 독자


가 이해하도록 어렵지 않게 배려했다. 글이 수월하게 읽히는 것은 필력의 도움과 더불어 본서가 '종교개혁 = 말씀운동'이란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교개혁이 말씀운동이었기에 개혁자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신칭의 교리를 주저함 없이 선포할 수 있었다. 저자는 루터의 이신칭의 구원론을 이렇게 평가한다. "[루터에게] 믿음은 수동적 일로서, 그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p.77)

종교개혁자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당시 교황이 지배하던 세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시민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면서 사회의 구조와 철학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칼뱅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제네바는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던 개신교 신자들에게 매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모되었다.(p.166) 그 결과 평신도에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부분에서 저자는 종교개혁의 유산이 현대 교회에도 여실히 중차대함을 밝힌다. 칭의 교리는 변함없이 도전받고 있으며 동시에 수많은 죄인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 특별히 저자는 복음주의권 내에서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불편해하며 일침을 놓는다. 로마 교회가 칭의를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향한 선언이 아니라 죄인이 거룩하게 자라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한, 21세기 두 진영의 동거에 대하여 루터가 들었다면 그의 "입이 찢어져 턱이 바닥에 닿았을 것이다."(p.283) 『불길』은 한국교회 독자에게 몇 가지 특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저자는 개혁자들에 대한 공정한 진솔로 역사를 평가한다. 독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을 담대한 용기와 명석한 지혜를 가졌

던 영웅으로 이해하기 쉽다. 저자는 독자의 편견에 객관적인 진솔로 응수한다. 개혁자들이 운동을 주도하며 보았던 인간적 약함과 역사적 한계를 본서 곳곳에 밝힌다. 이는 독자들에게 종교개혁이 인간의 역사 뒤에 계신 손길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은연 중 주장하는 것처럼 들린다.

또한 『불길』은 분량에 비해 다소 많은 양의 역사적 정보를 제공함에도 저자의 일관된 주장을 쫓아가며 지루할 틈 없이 정독할 수 있다. 리브스는 학자다운 예리함으로 다양한 역사 진술을 산만하지 않게 일관된 신학적 흐름을 주도하며 소개한다. 종교개혁의 신학적 맥을 정확히 짚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관심 있는 독자는 마치 낯선 지역의 여행이 긴장스러운 흥미를 주듯 평신도로서 알기 어려웠던 종교개혁의 의미를 접하게 될 것이다.

다만 종교개혁이 교회 내 운동을 넘어 직업, 학교, 가정 등 대사회적으로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비워둔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매우 간단히 언급만 될 뿐이다. 루터가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통해 보았던 것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성도의 영적/사회적 자유였다. 직업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국가와 정치의 현대적 개념이 세워졌다. 별도의 한 챕터로 언급되었으면 금상첨화였으리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아마 입문서로서의 분량과 구성의 한계 때문인 듯하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임을 자처하지만 단편적인 지식적 한계는 깊이 있는 교회와 미래의 비전에 걸림돌이다. 『불길』이 평신도 독자에게 종교개혁사의 입문서로서 주저 없이 선택되어 읽혀지길 바란다. 그래서 선배들의 송고한 정신이 21세기 위기의 시대 속에서 교회로 선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어 "온 세상이 결코 끄지 못할 불"로 부활하길 고대한다. 



우상현 삼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며, 삼일교회 기독교세계관 아카데미(SWA)의 시작과 함께 1년 동안 기초를 다지는 사역을 감당했다. 충남대학교 수학과(B.S.),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London Theological Seminary(설교자 과정),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에서 수학하였다.

서평 『알라』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의 실천적 가이드



미로슬라브 볼프 저
김지윤 역
MP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신은 동일하다.” 미로슬라브 볼프의 저서 『알라』의 주장이다. 모태신자로 주일학교와 대학부, 대학생선교회와 청년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해 온 내게 이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이 말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은 종교라고, 또 알라를 믿어도 구원을 얻으니 꼭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신학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센세이션을 일으켜 세상의 주목을 얻으려는 학자의 말 같기도 하다.

그런데 저자인 미로슬라브 볼프가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유고 내전을 겪으면서 인종 간의 학살, 또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살육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그 고통을 직접 겪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 어떤 강연장에서 위르겐 몰트만이 “하지만 당신은 체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라고 볼프에게 물었다. 『배제와 포용』(IVP, 2012)에서 볼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93년 겨울이었다. 당시 몇 달 동안 ‘체트닉’이라고 불리던 악명 높은 세르비아 전사들이 나의 고향 땅에 파멸의 씨를 뿌리고 있었다.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도시를 파괴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 안으셨듯이 우리도 원수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참이었다. 나는 체트닉—궁극적인 타자, 이를테면 악한 타자—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무엇이 그러한 끌어안음을 정당화해 줄까? 나는 어디에서 그럴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크로아티아인으로서는 나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답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즉시 알 수 있었다. “아니오,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3쪽)

이런 볼프가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신은 동일하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은 정신 나간 신학자의 헛소리도 아니고, 다원주의적 신앙관에 따라 “아무거나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요.”라는 말도 아니다. 그는 종교적 갈등과 분쟁의 핵심에서 분명히 일어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화해와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볼프의 논증은 치밀하지만 상식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학술적이지만 현학적이지 않다. 무엇보다도, 복음주의적 성서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복음주의적이면서도 어떻게 그런 주장이 가능할까? 이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서로 신앙의 이름으로 죽이려는 것을 서로의 신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이 구원론이지 않고 정치신학적이라고 줄곧 말하는 볼프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알라는 폭력적인 신이 아닌가? 볼프는 되묻는다. 정말로 알라가 폭력적인 신이고, 이슬람은 폭력적 종교인가라고, 우리가 이슬람을 폭력

과 더불어 연상하게 되는 것은 9.11 테러나 수없이 자행되어온 자살폭탄테러 등과 같은 사건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의 이름으로 행한 폭력은 기독교에도 많이 있었다. 무슬림들에게 기독교가 폭력적임을 연상하게 만드는 사건들 말이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폭력이 이슬람의 폭력보다 더 심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무슬림 테러리스트는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시다)’고 외치며 폭탄을 터뜨리지만, 십자군은 ‘크리스투스 도미누스(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며 무슬림의 목을 베었다. 둘째는, 오늘날 이슬람 폭력의 역사적 연원을 따져보면 기독교도 유죄라는 것이다. 이는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연결되는 알라-이슬람-폭력의 연상이 아니라, 다수의 무슬림의 삶과 전통적으로 존중받아 온 이슬람 신학자들의 꾸란 해석에서 나타나는 이슬람이 폭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16억 무슬림 인구



김선욱 현재 숭실대 철학과 교수 및 가치와윤리연구소 소장. 한국철학회 사무총장 및 제22차 세계철학대회 한국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기윤실 정치윤리운동본부장을 지냈다. 저서로 『정치와 진리』, 『아모르 문디와 레스 푸블리카: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 『성서적 정치실천』, 『평화와 반평화』 등과 많은 번역서가 있다.

의 절대 다수는 폭력을 반대하고 그에 저항한다. 책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이 다른데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동일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우선 볼프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비교한다.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에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을 인정할 수 없겠지만, 유대인이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두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대교의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믿음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신을 섬기는 것이 가능함을 기독교가 인정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우선 유일신을 진실로 믿는 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린다. 첫째는, 서로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신의 유일성’을 근거로 두 집단의 믿음의 대상이 같은 유일한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믿음은 옳고 다른 집단의 신앙은 모두 망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16억 무슬림 인구 모두가 집단적으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슬림들도 진지하게 신앙에 임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들과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볼프에 따르면, 다음의 네 가지가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유하는 믿음이다.

1. 신은 오직 한 분이다.
2. 신은 신이 아닌 모든 것을 창조했다.
3. 신은 신이 아닌 모든 것과 다르다.
4. 신은 선하시다.

신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라는 1~3의 믿음 외에도, 자신의 존재 안에서는 선하시며 피조물에 대해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여야만 한다. 전능자가

선해야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볼프는 이 네 가지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들이 신에 대해 말할 때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고 한다.

볼프는 여기에 다음의 두 가지를 더한다. 신이 내린 요구에서의 공통점을 찾은 것이다.

5. 신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를 다해 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6. 신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5~6번의 공통점만으로는 이 계명을 내린 신의 공통성을 입증할 수 없지만, 위의 1~4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5~6은 그것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위의 6가지 믿음에 동의를 한다면 두 종교의 예배의 대상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한다고 볼프는 말한다.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비록 예배의 모습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 차이를 갖고 있다 해도 말이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슬림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신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데 반해, 기독교에 있어 삼위일체 신관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요소인 것이다. 무슬림은 천지를 창조하고 돌보는 유일한 신의 단일성을 철저하게 믿는데, 삼위일체는 신의 단일성을 부정하므로 신성모독에 해당하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본다. 즉,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신의 단일성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신의 단일성은 기독교인들도 철저히 믿고 있는 바다. 삼위일체 신관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있기에 기독교인은 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결코 다신적으로 이해하지 않


는다. 즉, 무슬림이 비판하는 것과 같은 삼위일체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인들도 무슬림이 비판하는 방식의 삼위일체 이해를 거부한다. 따라서 볼프는 기독교의 진정한 삼위일체 관념을 무슬림이 인정하기만 하면 이슬람의 신관이 기독교의 신관과 충돌할 이유는 없게 된다고 한다.

물론 기독교인이 삼위일체 신관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성적으로 무슬람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마치 우리의 지성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을 다 파악한 뒤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일이다. 하나님의 지성은 인간의 지성을 능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위일체 관념 자체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무슬림이 이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을 통해서만 받아들이겠다면 문제가 된다. 삼위일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삼위일체가 “기독교 신앙의 감출 수 없는 비논리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드러낸다고 한 것이다. 마틴 루터도 기독교와 이슬람 신의 동일성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개혁의 대상으로 여긴 가톨릭보다 이슬람이 하나님에 대해 더 진지하다고도 말한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이 한 분의 공통의 신이라는 주장과 그 취지는, 서로 싸우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프는 말한다. 그들의 싸움의 원인이 신앙에 있지 않고 자신의 나쁜 욕망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될 것이다. 세계 인구 절반을 넘는 수를 이루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이유보다는 서로 협력을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기 때

문이다. 전 세계적인 빈부격차, 가난, 물 부족, 환경 훼손, 전염병 등과 같은 문제들 말이다. 더욱이 기독교와 이슬람 모두가 이미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쾌락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힘을 얻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는가고 볼프는 주장한다.

볼프의 이 같은 주장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 책에 대해 기독교 신관이 이슬람의 그것과 다른 점을 강조하거나, 폭력적 무슬림의 행태를 근거로 이슬람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이 책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진다. 구원이 문제라면 하나님과 알라의 동일성을 이처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볼프도 명확히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렬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삼위일체 신관이 왜 그토록 중요하며, 기독교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스탄불이나 코르도바, 그라나다에 있는 모스크이자 성당인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갖게 된 의문, ‘도대체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이 책을 통해 대부분 해결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이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는 탁월한 실천적 가이드 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5년 1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760,000	인건비	일반급여	3,744,000
	임원회비	630,000		기타급여	689,650
	일반회비	5,830,000		소계	4,433,650
	기관후원금	4,9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744,500		사무실관리비	436,000
	CTC후원금	90,000		통신비	594,680
	학술지원금	1,000,000		우편료	50,980
				소모품비	27,700
				비품	262,300
				식비	497,480
				복리후생비	688,880
				퇴직연금	309,250
				회의비	1,651,320
				기타	351,767
기타수입	소계	13,954,500		소계	5,420,357
	예수금	361,59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299,175
				학술지원금	1,000,000
	소계	361,590		소계	1,299,175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5,210,00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세계관기타수입	188,300		발송비	746,480
				소계	3,246,480
	소계	5,398,300	기타	세금	453,77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기타	0
	학술지심사비	70,000		소계	453,770
	학술지게재료	1,320,00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강사로	450,000
	저작권료	154,792		세계관행사준비	1,552,160
	소계	1,644,792		세계관기타	221,000
				소계	2,223,16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인쇄비	3,509,000
	학술지심사비	70,000		학술지발송비	758,590
	학술지게재료	1,320,000		학술지심사료	2,830,000
	저작권료	154,792		학회기타	100,000
	소계	1,644,792		소계	7,197,590
당월 수입액		21,359,182	당월 지출액		24,274,182
전월 이월액		54,208,949	차월 이월액		51,293,949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5년 1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1,100,000	인건비	직원급여	1,968,000
				기타급여	0
	소계	1,100,000		소계	1,968,0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도서판매비	231,000		편집비	300,000
	예수금	226,980		디자인비	1,056,000
				인쇄비	2,513,060
				소계	4,029,060
	소계	2,957,980	경상비	복리후생비	299,080
				퇴직연금	146,200
				회계용역비	110,000
				회의비	14,400
				소모품비	5,250
				식비	10,000
				소계	584,93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0	기타	세금	227,200
	미디어장학등록	0		기타	8,900
				소계	236,100
	소계	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강사로	1,700,000
				미디어비품구입비	33,00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식비	38,500
				미디어행사준비	654,827
				미디어기타	369,000
	소계	0		소계	2,795,327
당월 수입액		4,057,980	당월 지출액		9,613,417
전월 이월액		27,786,316	차월 이월액		22,230,879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2015년 1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illegible]

계 8,054,500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다온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강남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예심교회,
제자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한동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송탄제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기쁨병원
100만 백석정신아카데미, 엘비전
130만 주님의십자가교회

계 5.900.000원

광고후원

삼성전자, I&S법무법인, 흥성사, DCTY, 오하우스코리아, 휴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모임] 월드뷰리더(Reader) 공고

함께 모여 <월드뷰>를 읽는 리더Reader 모임을 시작합니다. 혼자만 읽기 아쉬웠던 분들, 혹은 나누고 싶었지만 나눌 이가 없던 분들 함께 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 받습니다.

- 장소 와우카페 (2,4호선 사당역 인근)
- 문의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담당 : 김고운 간사)

[대학원생 모임]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공고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문의 02-754-8004

[발표논문모집] 2016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돌아오는 봄,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전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주제 기독교 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 일시 2016.5.28.(토)
- 장소 전주대학교
- 문발표 신청접수 마감 4/18(월) 저녁 7시
- 발표분과 경제/경영, 교육, 문화예술, 법학, 철학, 역사, 상담심리, 사회복지, 의료보건, 융합, 기독교세계관 등
- 문의 02-754-8004 (담당 : 신호영 간사)

[구인] 함께 섬길 간사를 구합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함께 섬길 간사를 구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운동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분을 모십니다.

■ 근무형태 간사(상근)

■ 공통지원자격

- 1) 신앙고백이 있는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
- 2)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하고 사역에 공감하는 열심과 열정의 그리스도인
- 3) 기본문서 작성 가능한 분
- 4)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근무조건

- 1) 주5일근무
- 2) 4대보험가입, 퇴직연금 가입(1년이상 재직시), 점심/야근시 식대 제공
- 3) 급여: 내규에 따름
- 4) 근무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자유형식)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info@worldview.or.kr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기타사항

-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이메일로 접수 후 다음날까지 확인메일 또는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채용 심사 후 모두 파기합니다)

■ 문의 02-754-8004 (담당: 신효영 간사)

1
2
3
4 월드뷰 리더 모임
5 대학원생 모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월드뷰 4월호 발행
30
31 신앙과 학문 21권 1호 발행



기적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가 첫 설교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의 5병2어 기적에서 숫자를 혼동하고 말았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해야 할 것을 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사람을 먹였다 했다. 예배 후 어떤 장로가 “그런 기적이야 나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고 놀렸다. 다음 주일에 목사는 그 실수를 사과하고 5병2어로 5,000명을 먹였다고 정정하였다. 그리고는 놀렸던 장로를 향해 “장로님은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요?”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로는 “할 수 있습니다.” 답했다.

“어떻게요?”

장로 왈: “지난 주일에 5사람 먹이고도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광주리가 아니라 수백 광주리나 되거든요.” 